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ISSN : 1226-9980(Print)

1907년 의병전쟁 참여세력의 존재양상과 일제의 대응 - 경기 · 강원 · 충청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심철기

To cite this article : 심철기 (2017) 1907년 의병전쟁 참여세력의 존재양상과 일제의 대응 - 경기 · 강원 · 충청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79-12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1907년 의병전쟁 참여세력의 존재양상과 일제의 대응

- 경기·강원·충청지역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심철기*

목 차

- I. 머리말
- II. 의병참여세력의 존재양상
- III. 의병에 대한 일제의 대응
- IV. 맺음말

I. 머리말

대한제국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일제의 침탈을 받게 된다.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 헤이그특사사건에 따른 광무황제의 강제퇴위, 정미7조약의 체결과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 등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주권침탈은 식민지화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민족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전국적으로 의병봉기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광무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운동은 의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즉, 1907년 의병전쟁은 대한제국의 주권수호와 일제침략으로

*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일어난 사회·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의병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은 양반유생부터 농민층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였다. 이는 참여세력에 분석을 통해 유생의병장 뿐만 아니라 평민의병장, 해산군인 출신 의병장 등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들의 활동을 통해 의병의 전술과 목표 또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또한 호남의병, 경기의병 등을 중심으로 병사층의 성격분석 등이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병참여세력에 대한 연구가 의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병사층³⁾에 대해서는 참여 동기, 일제의 대응 등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의병을 사칭하는 자들의 존재양상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병사층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것은 병사층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자료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분, 직업, 활동, 형량, 검사, 적용법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재판기록은 주목된다. 재판기록은 의병탄압측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의병에 참여인물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활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문’에 기재된 형량과 입회한 검사를 통해 일제의 대응과 의도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의병참여세력의 존재양태와 일제의 대응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
- 1)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 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심철기, 『한말 원주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방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 병사층에 대한 성격분석으로는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 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등이 참조된다.
 - 3) 본 논문에서 병사층은 일반적인 의병직제의 의병장, 중군장 등이나 독자적으로 활동한 의병장을 제외한 의병으로 규정하였다.

재판기록 중에서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지역은 1907년 의병전쟁 초기 13도창의군의 결성, 서울진공작전 등 의병전쟁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의병전쟁의 중심이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역의 의병전쟁은 크게 위축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된다. 즉, 중부지역은 초기 의병전쟁의 중심지로 의병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될 때와 이후 일본군의 탄압으로 쇠퇴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의병참여자의 활동과 일제의 대응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재판기록을 통해 병사층에 참여하고 인물들의 지역적 분포와 특성, 계층적 특징, 활동 등을 살펴서 그들의 존재양태, 참여 동기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 형량의 변화, 입회한 검사들에 대해 분석해서 병사층에 대한 일제의 대응과 의병에 대한 군사적 탄압과 맞물려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였는지 등을 보고자 한다.

II. 의병참여세력의 존재양상

의병참여세력 분석을 위한 의병운동 관련 재판기록은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국가기록원에는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이 약 19,000여건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병관련 판결문은 911건이고 인물로는 594명이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 의병항쟁재판기록』에는 1,500여 사건과 3,000여명의 의병재판기록이 있다. 이들 재판기록 중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 재판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에서는 254명이고,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 의병항쟁재판기록』에서는 460명이었다. 이

4)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1;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 의병항쟁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는 의병재판기록의 약 42.7%와 약 15.3%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재판기록에 있는 인물을 전부 의병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하는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수록된 의병계열 포상자와 비교해서 분석대상자를 추출하였다.⁵⁾ 국가보훈처에서 의병계열로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인물은 약 2,400여 명이고 그 중에서 경기, 강원, 충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707명이었다. 이 중 재판기록에 기재된 인물은 277명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공훈록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재판기록에서 의병장을 확인할 수 있거나, 활동내용이 의병으로 확인되는 인물 69명을 추가하여 3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의병의 수가 비록 많지 않지만 일본군과의 교전 속에서 체포되거나 일본군의 추적에 의해 체포된 인물들이고 그 활동도 시기별 의병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346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처리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재판기록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성명, 주소, 나이, 직업(신분), 형량, 항소형량 1, 항소형량 2, 의병부대(장), 활동지역, 활동내용, 체포일/활동시기, 판결일, 판결서, 검사, 항소판결서 1, 검사, 항소판결서 2, 검사, 근거법전 등을 기본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표 1>이 그것이다.

<표 1> 경기·강원·충청 의병전쟁 참여인물 DB

성명	지역 주소 (도)	지역 주소 (군)	내리지 주소	나이	직업 (신분)	형량	항소 형량 1	항소 형량 2	의병 부대 (장)	활동 지역	활동내용	체포일/ 활동 시기	판결일	판결서	검사	항소 판결서 1	항소 판결서 2	검사	근거법령	
김순복 金順福	경기	포천군	내소면 (內所面) 초가 팔리 (初加八里)	28세	농업	징역 7년			이은관 주광표 강기봉	양주 포천	1907년 음력 10월 11일 양주군 건대리(槿代里)로 난입, 12월 포천군 내동면(內洞面)으로 난입, 1909년 음력 10월 초순 포천군 송우리(松隅里)로 난입	1909년 음력 10월 초순		판결						

5)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독립유공자공훈록』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물찾기 독립유공자(공훈록)에서 의병계열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국 金顯國 일명 : 김치영 金致榮	강원 원주군	소초면 (所草面) 일리 (日里) 제1통 제6호	56세	무직	교수형	피고의 공소는 기각	상고 기각	김현국 金顯國	원주 여주	1907년 음력 7월 2일에 원주군 문막리(文幕里) 에서 의병봉기한 후 여 주군 우편 취급소를 습 격, 1908년 9월 8일에 신림(神林)원봉본진소 를 습격할 무렵 그 부 근 인가에 방화하고 동 년 10월 24일에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영달리 (永浪里)에서 안흥(安興) 에 주재한 헌병 5명과 접전하였고 기타 경기 도·강원도·충청도 각 지에서 30여 회에 걸쳐 서 일본토벌대와 전투	1908년 10월 24일	경성 지방 재판소	판결 유죄 3년 형(刑) 제 139호	伊藤 德順	판결	寺田 恒太郎	판결 유죄 3년 형상 제 140호	홍종익 洪鍾翼
석만길 石萬吉	강원 원주군	교전동 (橋田洞)	36세	농업	유형 5년 총· 총검· 군도 및 그 띠· 탄약은 불수			민공호 閔育鎬	원주	1907년 8월경 민공호 (閔育鎬)의 부하에 가 맹하여 원주 군내의 각 지를 횡행한 자	1907년 8월경		판결 유죄 2년 형(刑) 제 275호		姜谷 精吾			
채경묵 蔡敬默	강원 영월군	우변면 (右邊面) 공수원 (公水院)	39세	농업	징역 5년			이강년 李康年	원주 강릉 영월	1907년 9월 15일경 원 주군 유채(柳柴)에서 일 본군과 교전 동년 10월 15일에 강릉(江陵) 행정 (杏亭)에서 일본병의 공 격을 받을, 의병을 사칭 하는 김모를 살해	1907년 10월 15일		판결 유죄 3년 형(刑) 제 173호		小野 政太郎			
하남 식 河南植	경성 북부	홍천 (紅峴)	21세	이반업	유형 10년			임태준 林泰俊 연기우 (延起 淵務)	광주	1908년 음력 3월 초순 동대문 밖 불암동(佛 岩洞)에서 토벌대와 교전 다시 연기우(延起淵務) 의 부하로 들어가 동월 20일경 마천(馬田) 등지 에서 재차 토벌대와 교전	1908년 음력 3월		판결 유죄 2년 형공 제 11호		寺田 恒太郎			
홍의선 洪宜善	강원 영월군	좌변면 (左邊面) 거포리 (巨浦里)	49세	농업		피고의 공소는 기각		이인영 李麟榮	충주 제천	1907년 8월 중 충주군 주류면(周柳面) 장전리 (倉前里) 조모(趙某) 집 에서 10원을 강탈 동년 11월 제천군 북면(北面) 송환리(松環里) 백(白)모 집에서 1원을 강탈	1907년 11월	1909년 10월 7일 (중주 지방 재판소)		판결	杉村 逸樓			

1. 지역별 분포와 특성

<표 1>과 같이 정리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한 인물 346명을 주소지 및 출생지로 재정리해 보면 경기도⁶⁾ 211명, 강

6) 기존 재판기록 자료집의 분류에 따라 서울(한성, 경성)을 경기도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원도 59명, 충청도 76명이었다. 이 중 경기도에는 서울 출신으로 청국에서 활동하는 인물 1명, 충청도에는 대구출신으로 충주, 음성 등지에서 활동하는 인물 1명, 충주출신으로 충주, 강원 원주, 괴산 등지에서 활동하던 인물 1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는 관동창의대에 참여하고 있던 평안도 운산 출신의 좌군장 방인관과 함경도 출신 좌선봉 정봉준의 경우와 같은 경우인데, 방인관과 정봉준은 당시 충주 노은면 소재의 금광 광부로 있다가 의병에 참여하였다.⁷⁾

이러한 통계만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에서 일어난 의병은 주로 봉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근접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극히 소수가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역에서 의병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광범위한 통계이기에 이를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46명을 지역별로 세분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각 군현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그것이 <표 2>이다.

<표 2> 한성 및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각 군현의 의병참여자 수

한성 및 경기도	의병수	강원도	의병수	충북	의병수	충남	의병수	비고
한성	56	강릉	3	괴산	2	결성	1	서울출생 청국 활동 1명 포함
가평	5	금성	1	단양	1	공주	3	재관기록상 강원도 가평 1명 포함
강화	3	삼척	2	면천	1	남양	1	
개성	3	양구	3	문의	1	남포	4	
고양	3	영월	11	보은	2	당진	2	
과천	1	울진	2	영동	1	목천	1	
광주	10	원주	11	영춘	4	부여	3	
남양	2	인제	3	영풍	1	석성	1	
마천	10	정선	3	음성	2	연산	2	

7) 심철기, 『한말 원주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방략』,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07~208쪽.

삭녕	1	철원	2	제천	3	온양	1	
수원	4	춘천	1	청안	1	정산	6	
시흥	1	통천	1	청주	8	태안	1	
양주	23	평창	6	청풍	2	함양	1	
양지	2	홍천	2	충주	6	해미	3	
양평	4	화천	1	황간	2	홍산	1	
여주	3	회양	3			홍주	7	
연천	7	횡성	4	-	-	회덕	1	
영평	2	-	-	-	-	-	-	
용인	15	-	-	-	-	-	-	
음죽	3	-	-	-	-	-	-	
이천	4	-	-	-	-	-	-	
인천	1	-	-	-	-	-	-	
장단	16	-	-	-	-	-	-	
적성	2	-	-	-	-	-	-	
죽산	2	-	-	-	-	-	-	
지평	4	-	-	-	-	-	-	
통진	4	-	-	-	-	-	-	
파주	7	-	-	-	-	-	-	
포천	11	-	-	-	-	-	-	
풍덕	2	-	-	-	-	-	-	
합계	211	-	59	-	37	-	39	346

<표 2>에 의하면 한성 및 경기도에서 10명 이상 의병에 가담하고 있던 지역은 한성(59명), 광주(10명), 마전(10명), 양주(23명), 용인(15명), 장단(16명), 포천(11명)으로 총 144명이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의 약 68.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는 10명 이상 의병에 가담하고 있던 지역은 원주(11명), 영월(11명)이었고, 인접지역인 횡성(4명), 평창(6명)에서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4개 지역에서 참여한 의병의 수는 강원도 전체의 약 54.2%에 해당하였다. 충청도는 10명이상 참여한 지역은 없으나 청주(8명), 충주(6명), 홍주(7명), 정산(5

명) 등에서 의병 참여자가 많았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경우 의병운동의 중심지였던 제천을 포함하여 4군으로 지칭되는 제천(3명), 청풍(2명), 단양(1명), 영춘(4명)에서 참여한 의병수는 10명이었다. 이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의병참여자가 많았던 군현이 의병전쟁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의병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의병참여자 수를 <표 3>과 같이 일제에 의해 체포된 의병들의 체포일 또는 활동시기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의병전쟁이 전개된 시기는 1907년을 전후한 의병전쟁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3>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표 3>에 의하면 경기도는 1907~8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고, 강원도는 1907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였다. 또 충청도는 1906~7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이 초기 의병전쟁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체포(활동시기)된 의병참여자수

		1906년 이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1911년 이후	합계	비고
한성 및 경기	한성	1	27	20	3	4	1	56	
	광주	-	4	6	-	-	-	10	
	마전	-	3	2	4	1	-	10	
	양주	-	9	5	6	3	-	23	
	용인	-	1	9	5	-	-	15	
	장단	-	2	10	3	1	-	16	
	포천	-	-	5	4	2	-	11	
	기타	-	21	32	13	4	-	70	
	소계	1	67	89	38	15	1	211	
강원	원주	-	6	2	2	-	1	11	
	영월	-	8	3	-	-	-	11	
	횡성	-	2	-	2	-	-	4	1909년 1명은 경북에서 활동

	평창	—	2	3	1	—	—	6	
	기타	2	10	10	4	—	1	27	
	소계	2	28	18	9	1	1	59	
충청	청주	—	6	2	—	—	—	8	1907년 1명은 서울에서 활동
	충주	—	4	2	—	—	—	6	
	홍주	5	1	1	—	—	—	7	
	정산	4	1	—	1	—	—	6	1907년 1명은 서울에서 활동
	4군	—	7	2	1	—	—	10	
	기타	12	8	12	5	—	2	39	
	소계	21	27	19	7	—	2	76	
합계	24	122	126	54	16	4	346		

이러한 상황을 강원도의 경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주진위대의 봉기와장부터 불 필요가 있다. 1907년 8월 5일에 있었던 원주진위대의 봉기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군대해산과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그러나 원주진위대 봉기에는 해산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의 한국병 258명은 폭민(暴民)과 함께 일본인을 덮쳐 약탈을 했다’⁸⁾는 기록과 원주진위대 병사들이 무기고의 무기를 가지고 시민들과 합세⁹⁾하였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원주진위대가 봉기한 5일은 원주의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었으며, 장날에는 지역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거나 봉기가 일어나곤 하였다.¹⁰⁾ 즉 폭민, 시민은 원주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농민, 상인, 무직, 학생, 유생 등 다양한 계층을 표현한 것이고, 원주진위대 봉기에 해산군인뿐만 아니라 이들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 同地ノ韓兵二百五十八暴民ト共ニ日本人ヲ襲ヒ略奪ヲ爲セリ(『統監府文書』3권, 「九. 甲種文書部」, (32) [韓兵 原州地方 日本人 襲擊事件 狀況報告]).

9) 翌日ニ被捉於市民而入營則兵舍與軍器庫가 破碎無餘호고 士民은 散在四方호야 與市民合勢(『대한제국 관보』 제3877호, 1907년 9월 21일, 「彙報」).

10) 1885년에 있었던 원주민란의 2차 봉기도 원주 장날인 5일에 일어났다. 원주민란의 참여세력에 대해서는 심철기, 「19세기 원주지역의 환곡문제와 농민항쟁」,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2호, 2010 참조.

의병모집활동은 원주의병으로 재편된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일본군의 의병탄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원주진위대가 봉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의병봉기가 각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토벌대를 구성하였다. 8월 6일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 47연대 제3대대장 시모바야시(下林) 소좌를 지휘관으로 하고 보병 2중대, 기관총 4문, 공병 1소대로 이루어진 지대를 편성하였다. 편성이 끝난 시모바야시(下林) 지대는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의병을 진압하고 원주진위대 해산을 원조하라는 임무를 받고 7일 서울을 출발하여 두물머리(二水頭), 지평(砥平)을 거쳐 10일 오후 원주에 도착하였다.¹¹⁾

기관총과 폭약을 다룰 수 있는 공병대까지 포함된 특별편성부대의 주둔은 의병들에게 큰 위협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병은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방법으로 지속적인 의병소모와 연합의병이 추진되었다. 이는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원주에 주둔한 시모바야시(下林) 지대는 ‘의병소탕작전’을 전개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상황을 시모바야시(下林) 지대장은 ‘의병은 지역민들의 비호를 받고 있고, 諜報 근무는 극히 민활하여 교묘하게 우리 행동을 탐지하고 은연 출몰하므로, 원주 도착 후 그 부근 소탕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수 일 동안 조금도 얻은 바가 없었다.’¹²⁾고 하였다. 또한 시모바야시(下林) 지대와 의병과의 첫 전투인 제천천남전투는 연합의병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천남전투는 제천천남 일대에 매복하고 있던 민궁호 의병부대, 윤기영 의병부대, 오경묵 의병부대, 정대무 의병부대, 이강년 의병부대 등 강원도, 충청도에서 봉기한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시모바야시 지대 소속의 스에야스(未安) 중위

11) 「參1發 제48호」(1907년 8월 11일), 『한말의병자료』 IV, 독립기념관, 2002, 39쪽; 「조선폭도 토벌지」, 687쪽.

12) 「조선폭도토벌지」 『獨立運動史資料集』 제3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87~688쪽.

가 이끄는 정찰대와 전개한 전투였다.¹³⁾ 전남전투에 참여한 의병부대의 인원은 약 2,000명이었다.¹⁴⁾ 이런 대규모 병력이 모인 것은 연합의병이라는 점도 있지만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의병소모활동이 전개된 결과였던 것이다.

이후 관동창의대가 출범하고 13도창의군의 결성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의병소모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관동창의대는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양주로 이동하면서 관동창의대장 명의로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소모하거나 의병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구하고 있었다.¹⁵⁾ 13도창의군의 결성과 함께 추진된 서울진공작전은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것이었기

- 13) 再昨日에 韓兵一百五拾餘名과 民兵六拾餘名이 堤川에 聚合호야 隊伍를 整齊하고 方欲前進이라가 適其時에 日本末安中尉의 所率호는 偵察隊를 遇着호야 一場을 交鋒호야 四時間에 延及호되 韓兵의 奮勇을 不敵호야 偵察隊가 忠州로 退却호야는대 日兵의 重傷者가 數名이라 호야고 拾六日 忠州電을 據호는 末安中尉의 一대는 新림을 經호야 堤川距二十里許의 量營을 設호고 十五日에 居民의게 探問호고 斥侯兵을 派出호야 韓兵住在處十里許에 至호야는 時에 韓兵의 數는 民兵과 合호야 二千餘名이라 各處에 步哨를 配列호야다가 日兵斥候에 來함을 見호고 即時射擊호야 交鋒호다가 午後五時에 斥侯兵은 堤川邑에서 五百米突되는 高地에 占據호야고 韓步哨는 寧越方面에 在호는 高地를 越호야 退却호야는되 砲烟稍息에 邑中이 一空호고 人烟이 頓絶호는되 日已黃昏이라 日兵은 淸風街道로 沿호야 民家에 投宿코즈 忽 際에 義兵이 回旗호야 不意에 逆擊호고 郡衙前面高地의서도 義兵이 猛烈히 射擊을 始호야 左右挾攻호는되 日軍은 兵未及反호고 馬不及鞍호야 蒼黃應戰호는되 宿營地右邊高低에 困在호야고 日本警察대는 此를 應援호야 郡衙右邊高地를 據호야 盛히 射擊호야으나 義兵은 相거八馬場에 散兵線을 排列호야 十里에 延亘호고 日軍을 包圍호는대 日軍이 勢孤不敵호야 兵巡이 合勢호는되 義兵은 益益乘勢호야 圍益急호는되 時適午後九時三十分이라 日軍은 淸風街路로 向호야 退却코즈 호는되 同方面의도 多數集合호는을 聞하고 敢不向前하고 一里를 退却하야 左旋右折하야 高山方面에 退하야 露營호는 目的으로 突圍超險하야 山中의 隱入호야는되 尙恐來襲하야 徹夜不寐하고 翌日午前六時에 近左面院北地로 退却하야는대 韓兵은 死傷이 無호고 日軍은 日人報告을 據호는 則 重傷一名과 行衛不明이 一名이라 호야고 義兵은 氣勢가 尤壯에 日本兵巡은 彈藥이 乏絶호야 不能再振하야 忠州로 退却하야는되(『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8일, 「의병소식」); 『密大日記』, 『韓國駐劄軍 同守備隊配置圖等提出の件』, 1907년 10월 9일, 「暴徒討伐概況」, 363쪽; 구완희, 『한말의 체천의병』, 집문당, 1997, 278~279쪽.
- 14) 당시 신문에서 '韓兵의 數는 民兵과 合호야 二千餘名이라 各處에 步哨를 配列(『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8일, 「의병소식」)이라고 하여 연합의병의 규모를 진위대 해산군인을 포함하여 2,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 1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의병편 1-』, 국사편찬위원회, 1979, 155~157쪽.

에 의병소모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원주진위대의 봉기에서 13도창의군의 창설과 서울진공작전까지 주요한 의병활동이 1907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이런 활동의 중심지가 강원도에서 의병참여자가 많았던 원주, 영월, 평창, 횡성 등지였으며, 충청도의 제천 등 4군 지역 일대였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이전 시기에도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으며,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쉬운 곳이었다. 또 의병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된 화서학파의 근거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볼 때 의병전쟁에 참여자가 많은 지역은 사상적으로 중심지이거나 행정·군사적 요충지 또는 물적,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성 및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한성을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광무황제 강제퇴위 반대운동, 시위대의 봉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광무황제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동우회 같은 황제측근세력이었지만 청년회 회원, 인근 상인들, 시위대 군인 등도 참여하고 있었다.¹⁶⁾ 이와 관련해서 한성지역 의병전쟁 참여자들의 직업을 보면 <표 4>과 같이 퇴역군인, 해산병 등 군에서 근무했던 인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직, 장사 및 상업, 농업 등이었다. 즉, 한성 지역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의 상당수는 광무황제강제퇴위반대운동, 시위대 봉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의병에 참여한 지역은 광주, 마천, 양주, 용인, 장단, 포천이었다. 이 지역은 경기도 일대에서 의병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이었다. 서부 및 경기동북부 지역으로 김용기(金龍基),

16) 심철기, 「광무황제 강제퇴위 반대운동과 원주의병」, 『한국근현대사연구』 76, 2016, 69~71쪽.

지홍일(池洪一)이 이끄는 창의돌격대(倡義突擊隊), 이능권(李能權)이 이끄는 대동창의대(大東倡義隊), 연기우(延基羽)의 동한창의군장군사부(東韓倡義尊攘軍帥府), 김수민(金秀敏)의 창의도독부(倡義都督府), 이은찬(李殷瓚)의 창의원수부(倡義元帥府) 등이 활동하였다.¹⁷⁾ 경기도는 1907년 시위대의 봉기 이후 허위를 중심으로 의병세력이 결집되었다. 이들은 강원도의 관동창의대 등과 연합하여 13도창의군을 창설하면서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기에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병소모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병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와 다르게 1908년까지 계속해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던 것은 13도창의군이 추진한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 허위, 이은찬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황해도 일대에서 연합의병이 창설되어 다시금 서울진공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치열하게 의병전쟁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서도 의병참여자의 증가는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의 경우는 1906년에 의병참여자가 많았다. 충청도에 1906년과 1907년에 의병참여자가 많았던 것은 1906년의 홍주의병의 활동과 1907년 원주진위대의 봉기가 맞물려 충북 제천에서 봉기한 이강년 의병부대의 활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의 의병참여자 수를 보아도 충남 홍주를 비롯한 주변지역과 충북 충주와 제천을 포함한 4군 지역에서 의병참여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충주를 중심으로 4군 지역과 홍주지역은 의병운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제천, 청풍, 단양, 영춘의 4군 지역은 1896년 의병운동 당시부터 호좌의진의 중심지로 의병에 대한 지지세력이 많았던 곳이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의병참여자가 많았던 지역은

17) 이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 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8~164쪽 참조.

1907년 의병전쟁 초기에 의병항쟁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는 의병봉기지역에서 소모활동이 이뤄지고 그 곳을 중심으로 항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병활동이 여러 군현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 활동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활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활동무대에서 의병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의병참여자의 존재양태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서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의병 참여자가 많았던 주요 군현을 중심으로 의병들의 직업과 의병부대에서의 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표 4〉 한성 및 경기, 강원, 충청 주요 군현 의병참여자 직업

직업	전직 관리	전직 군인	노동 고용인	장사 및 상업 (보상)	농업	학생 유생	무직	미상	기타	합계	비고	
한성 및 경기도	한성	3	12	5	7	7	1	9	9	3	56	전직군인 중 미장이 1인, 술장사 1인 기타·승려, 이발업, 마차꾼
	광주				1	7			2		10	
	마전				1	9					10	
	양주				1	17		1	3	1(목수)	23	
	용인			3		12					15	농업 1인 동장
	장단				2	11		1	1	1(요리)	16	
포천				2	6	1	2			11		
강원도	원주		2			4	1	1	1	2(대장장이)	11	전직군인 현 마부 1인, 농업 1인
	영월		1		1	8				1(목수)	11	전직군인 현 농업 1인
	횡성		1			3					4	전직군인 현 광부 1인
	평창		1			4			1		6	전직군인 현 주막업 1인

충북	청주	2			2		1	2	1(이발)	8	전직군인 현농업 1인
	충주			1	2			3		6	
	제천	1			2					3	
	청풍				1			1		2	
	단양				1					1	
	영춘				3			1		4	
충남	홍주	1		1	1			4		7	
	정산	2						3	1(승려)	6	
합계		4	22	8	17	100	3	15	31	10	210

<표 4>에 의하면 의병참여자의 직업으로 농업이 전체 4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직군인(10.4%), 장사 및 상업(8%), 무직(7.1%), 노동·고용인(3.8%) 순으로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민층이 의병부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핵심적인 전투력은 아니지만 병사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농업 이외에 동장, 뱃군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일제가 의병들의 직업을 파악하는데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당시 농민들의 삶이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직군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의병부대의 주요 전투력이 해산군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전직군인들이 농업, 미장이, 술장사, 마부, 광부, 주막업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된다. 특히 술장사, 주막업은 주목된다. 주막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병운동에 가담한 자들을 보면 상당수 의병과 내통하거나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피소된 경우가 많았다.¹⁸⁾ 주막은 의병에게 편의를 제공했

18) 홍순권, 『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史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275쪽.

을 뿐만 아니라 각종정보의 수집이나 대중 선전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런 주막을 전직군인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병부대에 해산 군인들이 주요 전투력 이외에도 정보수집, 연통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직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대해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⁹⁾ 일제는 1905년 이후 군대를 축소하기 시작하여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군에서 나와야 했는데, 경기도 일대는 주로 시위대 소속, 진위대 소속의 군인들이었고 강원도 지역은 원주진위대 소속의 군인들이었다. 일제의 침략정책에 의해 군에서 나오게 된 군인들은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군인들이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축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계기가 주어진다면 항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또한 의병에 대장장이, 목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의병부대의 무장능력과 관련해서 주목된다. ‘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1908년 2월 이후 화승총을 개조하여 4월 초순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개조된 뇌관식의 화승총을 사용하고 있다’²⁰⁾는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의병부대는 스스로 기존의 화승총을 뇌관식 단발총으로 개조하고 있었다. 이런 화승총의 개조에는 대장장이, 목수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으며, 이들이 의병부대에서 총기와 탄약의 수선 및 개조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제는 귀순자를 통해 강원도 지역에서 의병 참여세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의병참여세력은 첫째, 보호정책에 불만을 품은 완고한 양반유생으로 유인석 등의 화석학파였다. 둘째, 원주진위

19) 진위대의 경우 1905년 진위연대를 보병대대로 축소한데 이어 1907년 8월 1일 서울의 시위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산되었다.(심철기, 『한말 원주 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 방향』,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168쪽).

20)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1971, 202쪽.

대 해산군인으로 민공호를 그 중심인물로 보았다. 셋째, 의병에게 은밀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던 지방관으로 원주군수, 홍천군수 등이 있었다. 넷째, 초적의 무리, 노름꾼, 모군(募軍), 수군(輸軍), 총포화약단속법의 실시 에 불만을 가졌던 포수, 무지몽매한 빈민 등으로 분류하였다.²¹⁾ 이는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농민, 상업, 이발업, 목수, 대장장이, 고용인, 학생, 유생, 전직관료 등 다양한 신분층과 일정부분 상통하는 것이다. 즉, 1907년 의병전쟁은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위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2. 병사층의 성격과 활동

의병부대의 병사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병명부, 의병직제, 활동내역 등을 알아야 가능한데 아쉽게도 아직 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의병자료는 없다. 병사층에 대해서는 원주진위대 봉기의 경우와 같이 의병에 참여한 군인 등의 명부, 일제의 귀순자 명부 등을 통해 그 명단을 파악하는 정도이거나 의병부대의 활동내용 속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였다. 따라서 병사층의 성격, 참여계층 등은 파악하였지만 그들이 의병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재판 기록은 본인의 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한 것으로 의병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족하지만 의병부대에서 병사층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의병전쟁이 전개된 지역의 각 마을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총기를 사용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하거나 일진회원을 사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상당수 있었다.²²⁾ 특히,

21) 『江原道狀況梗概』, 「第七章」, 第一節 暴徒蜂起の原因, 春川憲兵隊本部, 1913, 171~173쪽.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65~66쪽.

이러한 모습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 중에서 종신징역, 교수형 등 종신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에서 주로 확인된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병 중에서 일제에 의해 종신징역, 교수형 등을 선고 받은 사람은 59명이었다. 이 59명의 출신도, 직업 등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표 5>에 의하면 59명 중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5명으로 59.3%에 해당하였다. 이들이 종신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 이유를 보면 첫째,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동장, 지역의 유력자 등에게 수차례 징집, 둘째, 일본군수비대와의 교전, 셋째, 일본어선·일본인 등에 대한 공격, 넷째, 일진회원·밀정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사살, 다섯째, 순사 및 헌병보조원 사살 등이었다.²³⁾ 일본군 및 일본인, 일진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상습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인물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적으로 볼 때 농업, 상업에 종사하고 있던 인물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이 직업군에 순수 농민들도 있지만 충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인물들도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군인, 동장, 유생 등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표 5> 경기·강원·충청도 의병참여자 직업별 형량(최종심 기준)

직업	도	유형	징역	유형	징역	유형	징역	종신	종신	교수형	금육	면소 무죄	
		1~5년	0~5년	6~10년	6~10년	11~15년	11~15년	유형	징역	사형			
전직 관리	경기			2								1	3
	강원												0
	충청			2									2

23) 「서영백(徐英伯)재판기록」 등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에 수록된 교수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의 선고이유에 기재되어 있다.

전직 군인	경기			11		1		1				13	
	강원										5	5	
	충청	2	2	2		1		1	1			9	
노동 고용인	경기		1	2	3		1	1			1	9	
	강원											0	
	충청											0	
장사 상업 (보상)	경기	8	4	4	2				3	1		22	
	강원		1						1			2	
	충청		3	1	3	1			2			10	
농업	경기	20	39	10	12	3	5	1		16	4	110	
	강원	15	8	1	2					6	1	33	
	충청	2	8	1	3	2	2	1	1	4		24	
학생 유생	경기	1		1								2	
	강원					1				1		2	
	충청											0	
미상	경기		2	16		2			3			23	
	강원			3	1	1	1					6	
	충청	1	3	5	3	1		7	1	5	1	27	
기타	경기		5	2						1		8	
	강원	2	1		7					2		12	
	충청		1		1							2	
합계		52	78	69	43	24	20	12	2	45	1	13	359

중형을 선고받고 있던 농민, 상인, 해산군인 등의 활동 중에서 일본군 및 일본인, 일진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일제의 침략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전개하면서 한일의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황무지개척권 요구, 광산조사, 산림벌채, 화폐개혁 등의 침략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치적인 침략을 넘어 국토에 대한 침략, 경제에 대한 종속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식민지화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정책은 원주 지역의 경우 원용팔 의병이 봉기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⁴⁾ 원용팔 의병장은

24) 심철기, 「1905년 원용팔 의병의 창의와 운동방략」, 『한국근현대사연구』 70, 2014. 참조

일진회에 대해 ‘당을 이루고 악행을 행하여 생민들을 침탈하고 빛을 독촉하며, 분묘를 파헤치고 종종 행패를 부려’²⁵⁾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진회는 1904년 10월에서 1905년 8월까지 경의선 철도 건설에 노무자를 지원하고 북진수송대를 결성하여 일본군 군수물자 수송에 앞장서는 등 일본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더 나아가 1905년 11월 5일 ‘을사보호조약’ 찬성선언서를 발표하는 등²⁶⁾ 친일행위의 대가로 일본의 후원을 입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진위대와 역둔토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있던 인물들의 직업이 주로 농민, 상민, 무직이 많았다는 것은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과 이에 편승한 일진회의 횡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용팔 의병은 이전 의병과 다르게 의병진압세력인 원주진위대와 연합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의병운동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어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심각한 주권침탈이 일어나자 1906년 홍주의병이 봉기하는 등 전국적인 의병봉기의 분위기는 팽배해졌다. 마침내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광무황제가 강제퇴위 당하고, 정미7조약이 체결과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이 진행되면서 극대화되었다. 대한제국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는 상황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광무황제강제퇴위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에는 황제측근, 시위대 군인, 시전상인, 일반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광무황제강제퇴위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에서도 유생, 상인,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확대되고 있던 광무황제강제퇴위반대운동은 군대해산과 맞물리면서 해산군인들이 참여한 의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일진회원을 처단하

25) 「曉諭一進會文」, 『義士三戒元乙巳倡義遺蹟』 卷上, 382쪽.

26) 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4~35쪽.

거나 일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여 중형을 받게 된 의병들은 황제의 강제퇴위로 촉발된 저항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다가 군대해산으로 확대된 의병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형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로 형량을 받은 사람들은 130명이었다. 이들의 직업군을 보았을 때에도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8명으로 전체 대비 8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의 거주지가 경기도, 강원도에 많다는 것은 1907~8년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관동창의대 등이 집중적으로 전개한 의병소모활동의 결과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병부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도 있지만 의병부대에 의해 강제 징집되거나 단순 가담자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활동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이들의 활동은 첫째, 의병부대의 일원으로 의병부대의 행군에 참여, 둘째, 각 촌락 내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에 참여, 셋째, 일본군과의 교전에 참여, 넷째, 양식의 징발·운반 등 잡역에 종사 등이었다.²⁷⁾ 이러한 활동은 의병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부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군자금 모집이나 일본군과의 교전은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그런데 군자금 모집이나 일본군과의 교전 등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다 실패로 돌아가 형량을 낮게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군자금 모집활동에서도 직접적으로 모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계보초를 섰으며, 일본군과의 교전에서도 주도적인 전투가 아닌 물자수송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양식의 운반 등 잡역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의병부대에 의해 소모된 농민들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무기를 다루거나 실질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었으나 의병부대의 병사층으로 의병부대의

27) 「南九西 재판기록」, 「辛明七 재판기록」, 「禹德元 재판기록」, 「柳命吉 재판기록」, 「姜春瑞 재판기록」 등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외연을 넓혀주었다. 따라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13도창의 군을 창설할 수 있었고, 서울진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 의병전쟁기 병사층으로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발적인 참여, 의병부대에 의한 강제 징집, 생계를 위한 용병, 잡역 등에 동원된 단순 가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일제의 침략정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진행된 황무지개척권 요구, 광산조사, 산림벌채, 화폐개혁 등의 침략정책과 이를 발판으로 대한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침탈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제는 관념적인 일제의 침탈이 아닌 실질적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일제의 침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일감정을 고조시켰으며, 지역민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하거나 의병을 후원, 협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표 6〉 연령대별 의병참여자 수

		10대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55	56~60	61이상	미상	비고
전직 관리	경기	-	-	-	1	1	1	-	-	-	-	-	
	강원	-	-	-	-	-	-	-	-	-	-	-	
전직 군인	경기	-	5	5	2	-	1	-	-	-	-	1	무직, 술장사, 농업, 미장이
	강원	-	-	-	4	1	-	-	-	-	-	-	주막업, 광부, 농업, 마부
노동 고용인	경기	1	3	5	-	-	-	-	-	-	-	-	
	강원	-	-	-	-	-	-	-	-	-	-	-	
장사 상업 (보상)	경기	-	6	8	2	2	3	1	1	-	-	-	
	강원	-	-	-	-	1	1	-	-	-	-	-	
농업	경기	2	21	35	21	14	6	4	6	2	1	-	벉군, 유생, 동장
	강원	1	4	7	3	8	6	3	2	2	-	-	
학생	경기	-	2	-	-	-	-	-	-	-	-	-	

유생	강원	-	-	-	2	-	-	-	-	-	-	-	
무직 미상	경기	1	12	10	8	3	2	2	-	-	-	1	
	강원	-	1	4	1	1	-	2	-	2	-	-	
기타	경기	-	1	1	3	-	-	1	1	-	-	-	목수, 이발업, 마차꾼 인력거, 돌절구제조, 승려, 미장이
	강원	-	1	1	-	1	-	-	-	-	-	-	대장장이, 목수
합계	경기	4	50	64	37	20	13	8	8	2	1	2	
	강원	1	6	12	10	12	7	5	2	4	0	0	
	총합계	5	56	76	47	32	20	13	10	6	1	2	

이러한 상황은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연령대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 의병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의병들의 연령대를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이 <표 6>에 의하면 의병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는 25~30세로 20대 후반이었다. 그 총 수는 경기도, 강원도 합하여 76명이었는데, 전체 270명의 28.1%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0~25세로 20대 초반이었는데, 56명으로 전체의 20.7%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은 31~35세로 30대 초반이었고, 47명으로 전체의 17.4%였다. 청년층인 20, 30대가 211명으로 전체의 78.1%에 해당하였다. 즉, 병사층의 병은 주로 2~30대의 젊은 청년층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직업을 보면 농업, 무직 및 미상, 상업, 전직군인 순으로 많았다. 이는 이들이 생산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일제의 침략정책과 일진회의 횡포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가장 많이 축적할 수 있었던 계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중 목수, 대장장이, 돌절구제조 등 제조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불만이 축적된 것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병무기제조 측면에서 의병부대의 필요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사층 의병은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타계하고자 의병부대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Ⅲ. 의병에 대한 일제의 대응

1. 의병전쟁의 양상변화

의병전쟁 초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의병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13도창의군이 추진했던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하면서 이들 지역의 의병활동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13도창의군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의 사망으로 낙향하고, 원주진위대 해산군인을 이끌고 있던 민공호가 사망하면서 급격히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 1908년 허위, 이은찬 등이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연합의병을 결성해서 다시금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허위가 피체되는 등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반농민들을 중심으로 의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의병부대의 활동도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소규모 유격전을 중심으로 군자금확보, 일진회원·밀정 등의 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의병부대의 활동변화는 새로운 문제와 부딪치게 되었는데, 의병을 사칭하는 자들과의 구분이었다. 의병을 사칭하는 자들은 군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금품을 빼앗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의병부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일제도 의병을 탄압하기에 좋은 구실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의병부대는 의병을 사칭하는 자들에 대한 구분과 그들에 대한 응징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삼았다. 이처럼 의병에게 불리한 상황변화는 의병참여자 수의 감소로 나타났는데, 앞 장의 <표 3>에서 보듯이 1909년 이후 의병참여자 수의 수가 극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병부대의 활동변화의 추이와 의병을 사칭하는 자들과의 구

분은 의병전쟁에 참여한 의병들을 이해하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의병부대의 활동변화는 의병자료와 일본측 자료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활동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병을 사칭하고 있던 자들과 의병을 구분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재판기록을 통해 의병참여인물의 활동과 일제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병참여인물들의 활동이 어떠했는지는 <표 7>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들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7>에 의하면 교수형, 사형, 종신징역, 종신유형 등 극형에 가까운 형은 주로 1907~1908년에 활동한 의병들에게 선고되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전개된 13도창의군의 활동과 서울진공작전에 따른 일본군수비대와의 교전과 해산군인들이 봉기 직후 이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와 일진회원의 처단 등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면소,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도 가장 많은데, 이는 당시 일제가 취하고 있던 회유책으로 면죄문병을 교부받은 자들로 재판에서 면죄문병을 근거로 면소판결을 받고 있었다.²⁸⁾ 이와 연관된 것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자수한 자들에게는 면소를 선고하지 않았으나 유형 1년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고 있었다.²⁹⁾ 그러나 귀순하였다가 다시 의병에 참여하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었다.³⁰⁾

28) 「姜乞石 재판기록」, 「金和春 재판기록」, 「柳聖文 재판기록」 등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29) 「朴鍾漢 재판기록」 등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30) 「吳長卿 재판기록」 등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표 7〉 1심 형량별 의병수

		유형 1~5년	징역 0~5년	유형 6~10년	징역 6~10년	유형 11~15년	징역 11~15년	종신 유형	종신 징역	교수형 사형	금옥	면소 무죄
경기	1907년	16	11	23	4	5	1	2	2	10	0	6
	1908년	18	20	32	9	2	4	4	2	15	1	2
	1909년	2	30	1	4	0	0	0	0	7	0	0
	1910년이후	0	17	0	3	0	1	0	0	1	0	0
	소계	36	78	56	20	7	6	6	4	33	1	8
강원	1907년	9	7	2(06년)	6	0	0	1	0	2	0	1
	1908년	9	3	1	3	1	0	0	0	3	0	0
	1909년	0	3	0	3	0	0	0	0	3	0	0
	1910년이후	0	1	0	1	0	1	0	1	2	0	0
	소계	18	14	3	13	1	1	1	1	10	0	1
합계	1907년	25	18	25	10	5	1	3	2	12	0	7
	1908년	27	23	33	12	3	4	4	2	18	1	2
	1909년	2	33	1	7	0	0	0	0	10	0	0
	1910년이후	0	18	0	4	0	2	0	1	3	0	0
	소계	54	92	59	33	8	7	7	5	43	1	9

1909년으로 넘어가면 징역 5년 또는 유형 5년 이내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이는 의병전쟁의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내려진 선고의 이유를 보면,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주로 군수물자의 확보에 집중되고 있었다. 더욱이 의병들에 대한 체포와 판결도 1907년이나 1908년에 의병전쟁에 참여한 것을 열거하면서 체포 당시의 잡범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제가 의병들의 투쟁을 폭도, 잡범, 질서파괴자로 몰아가는 것이지만 이 시기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의병전쟁이 수그러들면서 의병부대에 참여했던 의병들이 귀향 후 방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

1907년에서 1908년은 경기도, 강원도 일대가 의병전쟁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주요 의병장들이 전사하거나 체포되면서 의병전쟁의 양상은 변화하게 되었다.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투를 나타나지 않았다. 소규모 부대로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었다. 또 일진회, 밀정 등에 대한 처단도 주요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병전쟁의 양상은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의병활동은 1910년대 비밀결사와 연결해서 봐야할 것이지만 1914년까지 경기, 강원지역 일대에서 의병전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2. 일제의 대응

일제는 의병전쟁을 탄압하면서 의병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농민들과 의병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의병에 대한 면죄문빙을 발급하면서 의병부대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의병을 ‘폭도(暴徒)’로 표현하여 의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당시 의병은 각국 영사관에 통문³¹⁾을 보내고, 해외동포에게 격문³²⁾을 보내어 일제가 불법적으로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있으며 의병은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순연한 애국단체로서 각국은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이며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의병을 도와주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의병에 대한 국제여론을 호의적으로 형성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병의 전술이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의병전술에 대항해 의병

31) 각국영사관을 방문하고 통문 한 장식 드리게 하였으니 그대강뜻은 일본의 불의한 것을 토죄하며 한국의 참경을 설명하고 또 같아대 의병은 순연한 애국혈단이니 각국에서도 이것을 국제상 전쟁의 단체로 아는 것이 가하며 또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나라의 돕기를 바란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8일, 「고 의병총대장 리린영씨의 소적」.

32) 격문은 ‘외국에 있는 동포에게 격고한 글’의 제목으로 대한 광무 11년 9월 일 대한관동창의 장군 이인영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한민보』, 1919년 1월 23일, 「고 창의장군 이인영씨의 격문」에 실려 있다. 『신한민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대한국민회의의 기관지로 공립협회의 기관지인 『공립신보』와 대동보국회의의 기관지인 『대동공보』를 통합하여 1909년 2월 10일 창간하였다. 『신한민보』는 창간사에서 “어느 한 단체에 소속된 신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신문”이라고 한 것처럼 민족전체를 대변하는 신문임을 주장하면서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에 관한 논설과 기사를 게재하였다.

을 ‘暴徒’로 포장해 폭력성을 부각시켜 의병을 탄압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의병에 대한 담화, 연설 등을 통해 의병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여 해산을 유도하였다. 당시 한국주차군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는 의병을 일본군으로 진압할 수 있으나 의병을 진압한 후 시정(施政)의 책(策)이 마땅하지 않으면 다시 의병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따로 방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³³⁾ 그것은 강경책과 온건책이 있다. 강경책은 의병에 가담한 자나 의병을 숨겨주거나 의병무기를 은닉한자는 중죄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의병을 옹위한 촌락은 연대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온건책은 의병에 나와 자수를 하거나 의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하지 않고 포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의병에 대한 판결과 형량에는 일제의 의도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1심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 중 확인되는 인물은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기재판소 검사 李重赫을 비롯하여 20명이었다. 이 중 10건 이상 재판에 참여한 인물은 羅璫³⁴⁾, 히시타니 세이고(菱谷精吾)³⁵⁾ 스기무라(杉村逸樓)³⁶⁾ 小野篤次郎³⁷⁾ 오노 마사타로(小野政太郎)³⁸⁾ 모로즈미(兩角斌)³⁹⁾ 이토(伊藤德順)⁴⁰⁾ 이었다. 한국인 검사 나진을 제외

3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8일, 「長谷川の韓國談」;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5일 「의병진압방침」;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8일 「지방소요에 대한 의견」

34) 1908년 6월 대구지방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1909년 6월에는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로 발령받았다. 사법권 박탈로 사법기관이 통감부에 소속된 이후에도 검사로 활동했다. 합병 후에도 유인되어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를 지내다 1912년 3월 관제 변경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로 근무했다.(『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35)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대한제국 직원록』, 1908년), 1909년 6월 15일 검사로 임명됨(『순종실록』 순종 2년, 6월 15일)

36) 1899년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08년 여름 대한제국 정부의 초빙으로 京城覆審法院 검사로 근무함, 1929년 봄 퇴관 후 변호사 개업, 朝鮮信託會社 사장에 추대됨, 사법관으로서 영달하였고, 변호사로서 지방민의 권익신장을 도왔으며, 재계인으로서 산업진흥에 힘을 다하는 등 공적이 큰 인물

37)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

38)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검사

39) 1910년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

한 6명은 전부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메이지(明治)대학 법과 등을 졸업하고 조선에서 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⁴¹⁾

이들이 처리한 건수는 전체 223건 중에서 179건으로 80.2%를 차지하였다. 이중에서도 히시타니 세이고(菱谷精吾), 오노 마사타로(小野政太郎), 兩角斌, 이토(伊藤德順)가 가장 많은 판결에 입회하였다. 이들이 참여한 판결은 주로 유형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가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수형, 사형이 많았다. 특히, 이토(伊藤德順)는 12명으로 본인이 입회한 판결의 40%를 차지하였다. 히시타니 세이고(菱谷精吾)도 6명으로 자신이 입회한 판결의 12.5%를 차지하였다. 이 두 명은 교수형도 많지만 5년 이하의 형에서 가장 많이 입회하고 있었다. 히시타니 세이고(菱谷精吾)는 31건으로 본인이 입회한 64.5%를 차지하였다. 이토(伊藤德順)은 10건으로 33.3%를 차지하였다. 이토(伊藤德順)가 입회한 재판에서 교수형을 받은 의병은 김수민, 김영준, 김현국, 이은찬, 이인영 등 의병장으로 활동한 의병들이었다. 또한 교수형을 받은 의병은 일본인이나 일본순사, 밀정 등을 살해한 의병들이었다. 즉, 교수형은 의병장과 일본인 살해사건과 관련된 의병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의병장급 의병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의병을 다시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과 극형으로 의병에 대한 경계를 표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단순 가담자이거나 귀순자이었거나 군자금 모집

40)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 검사

41)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관검사로 주요 요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08년 새로운 재판제도를 창설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일본에서 판·검사, 또는 司法官試補가 될 자격이 있는 자,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3년 이상 理事官·부이사관 또는 경사로 있던 자가운데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한국인 판·검사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1907년의 재판소 구성법으로 설치된 재판소의 판·검사에서 임용하고 이외에 법관양성소와 외국대학 법률과의 졸업자 등에서 법관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특별 임용케 했다. 그 후 1909년 4월 9일 法官任用令(칙령 제48호)을 통해 판사·검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1907년의 재판소 구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의 판·검사에 재직하는 자, 법관양성소 졸업자, 외국대학의 법률과 졸업자 등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케 했다.

에 실패한 경우였다. 이는 어느 정도 회유의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1심 판결 참여검사별 형량(경: 경기도, 강: 강원도, 충: 충청도)

검사	유형 1~5년	징역 0~5년	유형 6~10년	징역 6~10년	유형 11~15년	징역 11~15년	중신 유형	중신 징역	교수형 사형	면소, 무죄	합계
金基肇 (08~09년)		1(경)	1(경)								2
李重赫 (07년)							1(경)				1
境長三郎 (09~10년)		1(경)				1(경)			1(경)		3
羅璜 (07~10년)		8(경)							1(경)	3(경)	12
菱谷精吾 (07~10.1)	8(강) 11(경)	12(경)	1(강) 1(충)	5(경)	1(강) 1(경)	1(경)			4(강) 2(경)	1(경)	48
多田吉鍾 (08.9~09.8)	2(경)	2(경)		1(경)					1(경)		6
寺田恒太郎 (07.9~08.4)	1(경)		2(경)		1(경)				2(경)		6
山田俊平 (15년)		2(충)									2
杉村逸樓 (08~09.5)		3(경)	4(경)	3(경)		2(경)	1(경)		3(경)	1(경)	17
森浦熊藏 (09.5)		1(강)									1
小野篤次郎 (08.11~10.5)	1(충)	1(강) 2(충)	1(경) 2(충)	1(충)	1(충)	1(충)			1(충)		11
小野政太郎 (08~09.3)	13(경) 6(강)	5(경) 1(경)	7(경)			1(경)			2(경)		35
柿原琢郎 (07.7, 11.12)		1(경)		5(강)							6
野田靫雄 (09.2~10.8)		2(경) 1(강)		1(강)							4
兩角斌 (09~10년)	2(경)	15(경) 1(강) 1(충)	4(경)						3(경)		26
伊藤德順 (09~10)	5(경) 2(강)	1(경) 2(강)	4(경)	3(경)	1(충)				8(경) 3(강) 1(충)		30

赤井定義 (09년)			1(강)						1
志水高次郎 (09년)			1(충)			1(충)	1(충)		3
秋場格太郎 (09.10)		1(경)							1
河村靜水 (10년)		α(경)	1(경)				1(경)		8

이러한 판결은 일제가 의병에 대한 방침으로 내세웠던 강경책과 온건책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일본군은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는데, 무차별한 살육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병과 전혀 관계없는 마을주민들도 학살되고 있었다.⁴²⁾ 특히, 촌락민 중 의병을 숙박시킨 자가 있으면 그 마을 전체를 불살라 무고한 양민을 살육하거나 飢寒에 떨게 하였다.⁴³⁾ 이는 의병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군의 민간이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기에 대한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⁴⁴⁾ 하지만 일본군은 질서를 확립하고 양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의병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살육과 衝火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42) 原州郡道城里에 義兵이 橫行함을 附近守備隊에서 探知襲擊하여 無辜良民九名이 中丸致死하고(『皇城新聞』, 융희 2년 3월 25일, 「義擧慘禍」).

43) 일전에 원주 안창역촌에 의병이 드러가서 쇼흔 필을 잡아 호쾌호는 때에 일병이 들입호거늘 의병은 어대로 다라나고 일병은 그 동네 집마다 총화호여 백성들이 죽었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5일, 「안창역에병화」); 러류군에는 일병의게 총화를 당호 동리가 스십여곳인데 견접홀대가 업서 도로에서 방황호는 정상을 춤아 눈으로 볼수가 업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5일, 「러류소식」); 일병이 양근읍을 총화호였단 말은 전보에 게재호였거니와 그때에 쇼화호 집이 읍내에 이백여호요 사탄과 덕곡과 룡암과 오빈네 동리에 구십여호요 옥천리에 이십여호요 거월 이십륙일에 일병이 양근읍에 도와서 여간 늙은 집을 몰수히 총화호였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8일, 「양근읍총화」).

44) 군부대신 리병무씨가 각지방에 일병이 총화호는 일에 대하여 장곡천대장과 여러번 그 판단을 금단호기로 의론호고 각지방에 있는 일군스령부에 훈령호였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7일, 「총화금단」).

이와 함께 일제는 의병전쟁에 참여하였던 주요 의병장에 대한 체포도 중요 과제로 삼았다. 이인영 의병장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일제는 13도 창의대장을 지냈던 이인영을 체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⁴⁵⁾ 그것은 의병전쟁이 수그러들던 상황에서 이인영 같은 주요 의병장이 재기할 경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의병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의병에 대한 회유책으로 귀순 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조(詔)를 내려 의병활동을 계속하여 소요하는 자는 법에 의해 처벌하지만 성심으로 귀순하는 자는 전죄(前罪)를 불문하고 안도 낙업(樂業)케 할 것이라고 효유하였다. 이것은 대한제국 황제의 조치으로 내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귀순조치으로 인해 상당수 의병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귀순하였는데, 1907년 10월 24일부터 1907년 12월 27일까지 경찰관서나 헌병대에 귀순한 의병은 총 26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수원경찰서에 2명, 여주경찰분서에 39명, 광주경찰분건소에 28명, 안성경찰분건소에 2명, 양근헌병분건소에 90명, 고안헌병분건소에 36명 총 197명이 귀순하였다. 황해도는 해주경찰서 1명, 송화경찰분서(松禾警察分署) 3명, 안악헌병분경서(安岳憲兵分遣所) 1명 총 5명이 귀순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는 춘천경찰서 1명, 금성경찰분건소 31명, 원주경찰분서 26명, 춘천수비대 6명 총 64명이 귀순하였다.⁴⁶⁾

재판기록에 나온 의병에 대한 판결은 교수형 같은 극형이거나 유형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주류였다. 이는 일제가 의병에 대한 강경한 탄압과 회유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병을 ‘폭도(暴徒)’로 규정하여 폭력성을 강조해 극단적으로 의병을 탄압하는 것을

45) 『統監府文書』 8권, 「李麟榮陳述調書」, (1) 賊魁 중의 巨擘 李麟榮 체포 전말, 부록 李麟榮의 진술(6월 11일 天安分隊長 보고), 1909년 6월 12일.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6권, 往電, 1907년 12월 10일.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교수형 등 극형이 선고되었다. 반면에 회유의 차원에서 귀순하거나 단순 가담자는 면소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1907년 의병전쟁 시기 참여세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병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평민의병장이 이전 시기보다 증가하였으며, 의병전쟁의 성격도 전 계층이 참여한 독립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병부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병사층에 대해서는 농민, 해산군인 등이 참여하였다고 할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참여과정, 성격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재판기록은 의미 있는 자료이다. 재판기록의 특성상 인적사항과 활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의병참여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기존에 추상적으로 설명되어지던 병사층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는 의병전쟁 초기 의병활동의 중심지였다. 이를 도별로 구분해 보면 경기도는 1907~8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였고, 강원도는 1907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였다. 충청도는 1906~7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군현단위로 보면 경기도는 한성, 양주, 포천, 마전, 용인 등이었고, 강원도는 원주, 영월, 평창, 횡성 등이었으며, 충청도는 홍주, 충주, 제천을 비롯한 4군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허위 의병장, 민공호 의병장, 이인영 의병장, 이강년 의병장, 민종식 의병장 등 주요 의병부대가 활동한 지역이었다. 즉,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의병참여자가 많았던 지역은 의병전쟁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병봉기지역에서 소모활동이 이뤄지고 그 곳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병활동이 여러 군현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의병소모활동 등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활동무대에서 의병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병부대에 병사층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병들의 참여형태를 보면, 자발적인 참여, 의병부대에 의한 강제 징집, 생계를 위한 용병, 잡역 등에 동원된 단순 가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진행된 황무지개척권 요구, 광산조사, 산림벌채, 화폐개혁 등의 침략정책과 이를 발판으로 대한 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침탈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제는 관념적인 일제의 침탈이 아닌 실질적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일제의 침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일감정을 고조시켰으며, 지역민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하거나 의병을 후원, 협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즉, 의병에 참여하는 의도는 다양하였지만 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된 포괄적인 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일제의 침탈에 직면한 현실에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의병전쟁은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주요 의병장들이 전사하거나 체포되면서 의병전술은 변경되었다.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투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규모 부대로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었다. 또 일진회, 밀정 등에 대한 처단이 주요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방략은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비밀결사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으며, 의병이 독립운동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의병전술의 변화에는 일제의 의한 가혹한 탄압이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일제는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무차별 살육을 저질렀으며, 회유책으로 면죄문빙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의병에 대한 지원, 참여,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의병에 대한 방침은 재판기록에 나온 의병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의병에 대한 판결은 교수형 같은 극형이거나 유형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주류였다. 이는 일제가 의병에 대한 강경한 탄압과 회유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병을 '暴徒'로 규정하여 폭력성을 강조해 극단적으로 의병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교수형 등 극형이 선고되었다. 반면에 회유의 차원에서 귀순하거나 단순 가담자는 면소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병에 대한 시기별 형량의 변화와 해당 재판기록에 기재된 검사들에 대한 특성을 통해 법률적인 처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면 현상적인 의병탄압을 넘어 사법적 측면에서 의병탄압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의병과 의병을 사칭하는 자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다음기회에 남아있는 모든 재판기록을 분석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투고일: 2월 8일 심사일: 2월 23일 게재확정일: 3월 2일

주제어: 판결문, 병사층, 의병소모, 형량, 직업, 유격전, 검사(檢事)

■ 참고문헌

- 『統監府文書』, 『대한제국 관보』,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皇城新聞』
『江原道狀況梗概』, 春川憲兵隊本部, 1913, 171~173쪽.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 의병항쟁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 I』,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1.
『獨立運動史資料集』 제3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말의병자료』 IV, 독립기념관, 200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의병편 1-』, 국사편찬위원회, 1979.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 : 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심철기, 『한말 원주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방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국문요약

1907년 의병전쟁 참여세력의 존재양상과 일제의 대응

- 경기·강원·충청지역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심철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는 의병전쟁 초기 의병활동의 중심지였다. 경기도는 1907~8년에, 강원도는 1907년에, 충청도는 1906~7년에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하였다. 이를 군현단위로 보면 경기도는 한성, 양주, 포천, 마전, 용인 등이, 강원도는 원주, 영월, 평창, 횡성 등이, 충청도는 홍주, 충주, 제천을 비롯한 4군 지역 등이 중심지였다. 이들 지역은 주요 의병장이 활동한 지역이었다. 즉,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의병참여자가 많았던 지역은 의병전쟁의 중심지였다. 이는 의병활동이 여러 군현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의병모집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활동무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사층의 참여형태를 보면, 자발적인 참여, 의병부대에 의한 강제 징집, 생계를 위한 용병, 잡역 등에 동원된 단순 가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진행된 황무지개척권 요구, 광산조사, 산림벌채, 화폐개혁 등의 침략정책과 이를 발판으로 대한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침탈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관념적인 일제의 침탈이 아닌 실질적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일제의 침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반일감정을 고조시켰으며, 지역민들이 의병운동에 참

여하거나 의병을 후원, 협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즉, 의병에 참여하는 의도는 다양하였지만 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된 포괄적인 원인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일제의 침탈에 직면한 현실에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의병전쟁은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주요 의병장들이 전사하거나 체포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의병전술도 변화여 소규모 부대로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었다. 또 일진회, 밀정 등에 대한 처단이 주요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병전술의 변화에는 일제의 의한 가혹한 탄압이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무차별 살육을 저질렀으며, 회유책으로 면죄문빙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의병에 대한 지원, 참여,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의병에 대한 방침은 판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의병을 '폭도'로 규정하여 폭력성을 강조해 의병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교수형 등 극형이 선고되었다. 반면에 귀순하거나 단순 가담자는 면소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 Abstract

Participant group of the Righteous Armies in 1907
and Japan's suppression

Sim, Chul-ki

The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were the centers of the Righteous Army (Ŭibyŏng) Movement in the early years of the Righteous Armies Wars. The most number of Righteous Armies were active in Gyeonggi Province in the years of 1907 to 1908, in Gangwon Province in the years 1907, and in Chungcheong Province in the years of 1906 to 1907. These provinces can be analyzed in further detail on the level of counties and prefectures: Hanseong, Yangju, Pocheon, Majŏn, and Yongin were the centers within Gyeonggi Province; Wŏnju, Yeongwol, Pyeongchang, and Hoengseong were the centers within Gangwon Province; and Hongju, Chungju, and Jecheon, along with four other counties were the centers within Chungcheong Province. These areas were regions where the major leaders of the Righteous Armies were active. In other words, the regions where there were many participants in the Righteous Armies in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were the centers of the Righteous Armies Wars. Based on such concentrations of the Righteous Armies in numbers, fundamentally, the Righteous Armies recruited people in their main strongholds, even though

the Righteous Armies recruitment occurred in other regions the Righteous Armies activities were in multiple counties and prefectures.

However, an examination of participation on the level of soldiers reveal that there were a variety of forms in participation, including voluntary participation, coerced conscription by the Righteous Armies troops, mercenary for livelihood, and simple participants mobilized for miscellaneous services. Meanwhile, they were the people who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the invasion policies of the Japanese empire.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the Japanese empire instituted invasion policies such as demanding the exploitation right for barren land, mine examination, forest lumbering, and currency reform. The Japanese also expanded into the Korean Empire (Great Han Empire, Taehanjeguk) with their foothold on these invasion policies,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s of Korea became places of plundering for their profit. As such, Koreans were faced with the pillage of the Japanese empire that was beyond the ideological plundering, but an actual and physical act of plundering by the Japanese empire that they experienced firsthand. Such situations aggravated the anti-Japanese sentiments, becoming a cause for locals to participate in the Righteous Armies movement or sponsoring and cooperating with the Righteous Armies. In other words, while there were various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the Righteous Armies, the comprehensive reason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Righteous Armies was in the reality in which they faced the actual and direct acts of plundering by the Japanese.

The Righteous Armies Wars in the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greatly reduced when the Recapture the Capital Operation (Seoul chin'gong chakchŏn) failed, and the

major leaders of the Righteous Armies died in battle or were arrested. The tactics of the Righteous Armies also changed, and securing war supplies in small-sized units became their main activity. Furthermore, the punishment of the pro-Japanese groups such as the Advancement Society (Iljinhoe) and secret agents (Miljung) also became their main activity. Such changes in the tactics of the Righteous Armies were affected by the harsh repression by the Japanese empire. In order to repress the Righteous Armies, the Japanese empire committed indiscriminate slaughters and issued documents of acquittal as a conciliatory policy. They attempted to prevent people from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in the Righteous Armies and their activities, as well as attempting to prevent the expansion of the Righteous Armies. Such measures taken by the Japanese empire also appear in the adjudications. The Japanese empire prescribed the Righteous Armies as “mobs” in order to emphasize that they were violent. In order to justify the repression of the Righteous Armies, capital punishments such as hanging verdicts were sentenced. However, for those who had defected from the Righteous Armies or were just simple participants were either acquitted or were sentenced with comparatively lighter punishments.

Key word : a written judgment, the level of soldiers, the Righteous Armies recruited, sentence, job, guerrilla, a public prosecutor